

## 한국 청소년의 정서,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박혜숙†

호남대학교

김양곤

대구보호관찰소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의 유발요인과 관련하여 세 가지 비행이 일반비행의 하위요인으로 본 모형과 세 가지 유형을 독립적으로 보는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고 어느 모형이 더 적절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자료의 중학생 코호트를 사용하였다. 21개의 독립변수가 다수의 0을 가진 세 가지 비행을 예측하는 Zero-inflated poisson 모형을 만들었고, 분석 시 Mplus 6.12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 유형의 비행을 일반비행(General Delinquency)의 하위요인으로 간주하는 모형이 개별 유형의 비행요인을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Zero inflated poisson 모형은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준다. 1) 비행 유무와 관련하여 비행을 전혀 하지 않을 그룹(비위험집단)에 관한 로짓모형 결과이며, 이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공격성이 높은 경우, 지위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효과는 작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2) 비행 빈도가 있는 그룹(위험그룹)을 대상으로 한 poisson모형 분석 결과, 비행의 유형에 따라 성별, 정서/성격, 가정환경, 또래환경이 개별 비행유형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세 유형의 비행 발생 빈도와 관련하여 공통점은 남학생인 경우와 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 발생이 더 높았다. 그러나 비행을 전혀 하지 않을 그룹(비위험집단)과 그렇지 않을 그룹(위험집단)을 분류하는 정확도가 높지 않기에 해석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 양육태도, 또래 애착, 우울, 공격성

\*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3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학회에서 피드백을 주신 계명대 허만세 교수와 세심한 피드백을 해주신 여러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박혜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6603, E-mail: parkhyes@honam.ac.kr

오늘날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 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2012년 소년범의 발생은 전년의 86,616명에서 20.7%나 증가한 104,532명에 이르렀다.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범의 비율도 전년의 4.8%에서 6.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경찰청, 2013). 2011년 「청소년 유해 환경 접촉 종합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응답자 15,954명 중 총 6.7%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의 비행과 범행의 양태는 점차적으로 자연령화, 집단화, 흉포화를 보이고 있다(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7). 청소년 시기의 비행은 그 자체로 심각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범죄나 부적응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Kazdin, Bass, Sigel, 그리고 Thomas, 1989; 이재경, 2012 재인용).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폭력 피해자는 신체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직접적, 간접적인 후유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폭력 가해자는 학교와 사회에서 문제가 아로 낙인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청소년의 학업과 사회적 성취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폭력의 양상에 따라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기광도, 2012). 이런 이유로 청소년 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기광도, 2012).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규범, 규칙과 관련된 행동의 준수는 이들의 성공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세 가지 유형의 비행 즉,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의 유발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위비행과 중비행(현실 비행)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sup>1)</sup>은 청소년의 음주, 흡연, 무단결석 및 가출 등을 말한다.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ies)은 특정 행위가 성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로 보지 않으나 청소년기라는 특정 시기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취급한다. 중비행은 타인의 신체, 정신에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비행과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절도 등을 포함하는 비행이다. 중비행은 지위비행에 비해 정도가 심각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행이다.

청소년기의 음주, 흡연, 무단결석 및 가출 등과 지위비행은 아동기의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Malaspina & Rimm-Kaufman, 2008). 사회계층과 관련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경비행/지위비행을 포함한 연구에서 가족의 수입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김준호, 노성호, 고경임, 최원기, 1990), 청소년 범죄와 같은 공식 통계에서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비행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Tittle & Villemez, 1977).

흡연에 관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성숙과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한다(Milton, Dugdill, Porcellaro, Springett, 2008). 14~18세 시기의 남녀 청소년의 음주 행동은 비행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Wiesner, Silbereisen, Weichold, 2008). 11~17세 청소년의 음주 남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음주 남용은 가족, 또래관계, 학교 및 이웃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Ennett, Foshee, Bauman, Hussong, Cai, Reyes, Faris, Hip & Durant, 2008; 이희정, 박혜숙, 전명남, 2009 재인용, p.84).

가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비행이라는 인식이

1) Sanders(1981)는 살인이나 강간, 강도, 폭행 등의 강력 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 재산 범죄를 중한 범죄로, 사소한 절도나 폭행을 형법위반 행위로, 가출이나 무단결석, 음주, 흡연,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 등을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다.

낮아지며, 단순 가출이 상습 가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중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응수와 김성진, 2010). 비행의 유형에 따른 비행 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이 지위비행이며 범죄성이 심각한 비행 즉 중비행에 속하는 남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폭력비행, 성비행, 금품갈취나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한다. 또한 비행의 종류에 따라 비행의 유발 요인이 다르나, 공통점도 있다고 한다(남재봉, 2010). 본 연구에서는 폭력비행과 재산비행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중비행으로 분류하였다.

### 사이버비행

본 연구에서 사이버비행은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비행을 말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청소년 비행의 양태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실명(identity)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점은 호기심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가상공간에 몰입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음란물의 접촉, 음란성 채팅,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해킹, 도박, 사기, 타인의 비방, 중상모략, 폭력적인 언어 사용 등 다양한 유해물에 쉽게 노출되어 위법행위에 참여하기도 한다. 일탈행동을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처벌의 위협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소정, 2010; 김지혜, 2013 재인용). 십대 청소년의 비윤리적 인터넷 활동이 다른 나이 그룹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대의 76%가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비행이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인터넷진흥원, 2012). 사이버비행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익명성, IT 기기와 스마트폰의 활성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의 용이한 취득, 인터넷 윤리와 적절한 활용에 대한 교육의 부재

로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함을 들고 있다(김지혜, 2013). 외국의 경우도 사이버비행에 의한 개인과 기업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행 청소년의 특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Rogers, Smoke, & Liu, 2006; 김지혜, 2013 재인용).

### 비행유발 이론과 관련 변인

비행의 유발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학적인 관점 등이 있다. 청소년의 비행은 특정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으로 이분화 하는 것을 극복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여러 문제들이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이상균, 2005). 대표적인 비행이론으로는 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 Sutherland의 차별교제이론(Akers의 사회학습이론) 등을 들 수 있다(Hirsch, 1969). 최근에는 여러 이론을 적용한 통합 모형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경향도 보인다. 비행의 원인에 대해 긴장이론(strain or motivational theories)은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이를 성취하는 합법적 수단 사이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좌절(긴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범죄에 의존한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비행에 연루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Hirsch(1969)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에도 비행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 것에는 앞의 이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경험적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에, 청소년의 미래 지위획득과 관련한 현재의 지위 특성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를 비행의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남재봉, 2011).

Sutherland의 차별교제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 혹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비행의 요인으로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중요하며, 일탈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학습하는 것이 비행의 주요인이라고 한다. 즉, 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에 긍정적인 태도를 학습하는 효과를 가져와 일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일탈행동은 관습적인 신념과 규범에 관한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한 사회통제기제의 결함 혹은 인습적인 관계성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통제/유대이론은 범행 잠재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부모나 친구 등 중요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나 학교에서의 인습적으로 바람직한 유대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Hirschi(1969)는 애착, 전념, 참여 및 신념을 사회 유대의 결정 요소라고 한다. 애착은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해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를 의미하며 부모와의 사랑,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심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개인이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애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Hirschi는 애착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긴장이론에서 사용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소득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 그리고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긴장요인으로 이야기되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유대이론/사회통제이론과 관련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차별교제이론과 관련하여 비행 친구 유무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특성으로 성별과 정서/특성을 모형에 넣어 비행의 유발과 관련된 통합 모형을 사용하여 비행에 관한 일반이론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 부모의 양육태도, 애착유형 및 비행

청소년기 비행과 애착과의 관계는 주로 부모 애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을 의미하는 애착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녀의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Erickson의 성격발달 이론이나 Bowlby의 애착이론(2008)에 의하면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건강한 인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생애 초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와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애착을 유형별로 즉 안정유형, 저항유형, 회피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애착의 유형이 항상 적응,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기도 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애착을 유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원, 즉, 안정특성, 회피특성, 저항특성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안정애착은 부모와의 관계를 따뜻하고 반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저항애착은 부모와의 관계를 양가적이거나 혹은 비밀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회피애착은 부모와의 관계를 차갑거나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옥분 외, 2008).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민감성(sensitivity)은 안전한 애착을 갖게 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과 정서를 저하시키고 불안감, 행동 문제,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Fergusson & Horwood, 1998).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유형으로 범주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정도로 보았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부모의 애착이 높은 경우 비행 발생의 가능성이 낮지만, 부모의 애착이 낮을 경우 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

련이 있다고 한다(Miller, Jennings, Alvarez-Rivera & Lanza-Kduce, 2009; 이재경, 2012 재인용, p.55). 비행 집단에서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분포가 많았고, 정상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형 애착 유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부모애착이나 또래애착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부모애착만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 2012).

비행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거부당했던 것으로 지각되어 발달된 거부·회피형 애착유형/특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 2001). 부정적인 태도는 일시적 문제행동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비행을 설명하는 변인이다(곽금주, 문은영, 1993). 영·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대처 방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효선 외, 2012).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음주와 비행을 예측하며(김용석, 박명숙, 2000),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경험은 상습적인 음주·흡연, 가출, 패싸움, 돈 뺏기 등의 비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도 작용한다. 반면 가정에서의 화목과 애정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억제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신혜섭, 2005).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다룬 연구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나쁠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우울, 공격성은 현실비행 뿐 아니라 사이버비행에도 영향을 준다(이성식, 전신현, 2012).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거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받아주는 친구와 어울리게 된다(김향초, 2009; 정익중 외, 2012 재인용). 즉 비행 친구와

의 유대는 부모와의 안정애착 등과 같은 다른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감의 결핍에 의하며, 일탈은 유대의 약화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Hirsch, 1969).

#### 또래관계와 비행

청소년은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내기에 부모와의 애착 문제는 또래관계의 문제로 확대된다. 또래애착은 긍정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래관계가 안정적인 경우, 행복 수준도 높고 생활 만족도도 높고(Ma & Hubner, 2008),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과 위축, 미성숙한 행동과 같은 부적응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한미현, 1996). 반면, 또래애착은 오히려 청소년 비행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이주리, 2008, 2011). 한국청소년패널 자료 분석 결과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낮을 경우 또래애착은 1년 후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이주리, 2011).

Sutherland(1939; 남재봉, 2011 재인용)는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일탈로 이어지기에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비행의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 또래 집단은 그 특성에 따라 청소년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rndt, 1992; 정익중, 이은주, 2012 재인용). 비행 경력이 없는 또래와의 어울림은 비행을 예방하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나, 비행 경력이 있는 또래와의 어울림은 반사회적 행동과 강한 연관이 있다(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한편,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지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황성현(2012)은 시기별로 부모, 혹은 또래와의 관계/애착의 영향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가족요인이 비행 친구 요인보다 청소년의 지위 비행을 더 잘 설명해 주고, 후기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정서/성격 특성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되는 정서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충동, 공격성, 우울 등이 자주 언급된다(진혜민, 배성우, 2012). 공격성과 우울은 비행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변인이라고 한다(김지혜, 2012, 재인용; 백혜정, 2009). 공격성을 충동성의 하위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충동성은 일반비행 뿐 아니라 하위 요인인 공격 행동에서도 비행의 증가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한다. 공격성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압박감, 내적 갈등, 불안 등의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비행을 일으킨다. 공격성은 가해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공격성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현수, 김현실, 2004). 공격성은 약물 사용이나 범죄와 같은 비행 및 가해 행동과 중요한 정적관계가 있다고 한다(임진섭, 2009 재인용). 소년원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과 공격성은 비행 집단의 폭력 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응철, 1999).

우울은 비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정서 변인으로서 다른 변인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우울한 청소년의 30%가 행동장애를 보이고, 비행 집단 중 23%가 우울을 동반한다는 결과가 있다(Kovacs & Gatsonis, 1989; 김지혜, 2013 재인용; 진혜민 외, 2009 재인용). 우울, 공격 행위, 약물남용 등과 같은 비행 행위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비행 집단 중 23%가 우울한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Chiles, Miller, 및 Cox, 198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비행 중 상당수가 정서적 문제인 우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그들이 보이는 비행에는 우울이라는 정서적 문제가 선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uig-Antich, 1982). 즉 우울 증상이 치료되면 행동상의 문제가 제거된다는 보고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슬픔, 낙심 등의 성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 증상의 형태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의 다른 증후군으로 나타난다(김윤정, 1999).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자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다(Conger & Peterson, 1984). 이와 같이 충동성, 공격성, 우울은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Puig-Antich(1982)은 우울이 비행에 선행하고 있음을 밝힌다.

사이버비행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비행을 유발하며, 우울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중독이 우울과 사이버비행을 매개한다고 하는 주장(이득연 외, 2006)과 우울이 인지적 몰락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김정원, 오경자, 1993)이 있다. 한편 비행과 우울은 상호인과 관계가 있어서, 항상 우울이 비행의 직접 원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최정아, 2010). 우울증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관련 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득연 외, 2006). 연구자들은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자존감, 거부예의 공포 특성 때문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비언적인 표현을 하여 면대면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기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인터넷 상에서 대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Young & Rodgers, 1998). 이런 이유로 쉽게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인 게임이나 음란물을 접하게 되고 비방이나 욕설, 해킹 등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아동·청소년패널 제2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우울은 사이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현실비행에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반대로 공격성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현실비행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김지혜, 2013)

비행의 유형에 따른 비행 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행 유형별로 비행 유발 관련 요인은 서로 상이하며 영향을 미치는 강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즉,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비행친구와의 교제, 자아통제력, 학교 유형성, 부모와의 결속, 학업성적, 부의 교육수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재산비행의 경우에는 비행 친구와 교제, 자아통제력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성비행의 경우에는 비행 친구와 교제, 성, 자아통제력, 부모와의 결속, 학교유형, 학업성적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봉, 2010). 비행 친구와의 교제와 자아통제력은 모든 비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비행인 지위비행과 중비행, 그리고 사이버비행을 일반비행의 하위요인으로 보는 모형과 각 비행유형별로 설명하는 모형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이론에서 밝혀진 주요 비행 변인이 비행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비행 관련 일반이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 우울증,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의 정서 특성이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의 세 가지 유형의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 가정의 소득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 수준, 가족구성에 나타난 가정환경 특성이 세 가지 유형의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청소년의 또래애착, 비행 친구 유무, 교사와의 관계, 폭력 피해 경험이 세 가지 유형의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세 가지 유형의 비행을 일반 청소년 비행의 하위 요소로 볼 수 있는가?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KCYP2010)」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의 효과를 장기적 측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가능한 제3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한 확률적 표집으로 수집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전국의 동일 발달 단계의 아동·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코호트는 총 2,351명이며, 이들의 중학교 3학년 때의 비행 경험을 주 종속변수로 하였다. 자료의 남학생은 1,140(48.5%)명이고 여학생은 1,119명(47.6%)이다. 성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92(2.9%)건 발견되었다.

####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은 개인특성 변인, 가정환경 특성 변인, 또래관계 변인, 학교환경 특성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은 세 가지 유형의 비행으로 구성하였다. 각 범주별 세부 변인은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 개인특성 변인

개인특성 변인은 학생의 성별과 정서문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중학교 1학년 때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였고, 정서문제는 제3차년도의 정서/성격변인으로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관한 문항 자료를 사용하였다. 공격성은 6개의 문항으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음,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함, 내가 원하는 것을

표 1. 사용한 변수

환경범주	하위 범주	세부 변수 (문항수)	Cronbach's
개인특성	신상	성별, 성적만족도	
		공격성(6문항)	.81
가정환경	정서문제	우울(10문항)	.91
		신체화(8문항)	.88
		사회적위축(5문항)	.88
		감독y1(3문항)	.76
		애정y1(4문항)	.76
	부모양육태도	학대(4문항)	.86
		방임(4문항)	.76
		사회경제수준	연평균 가구소득 (square root 변환)
	부모 특성	부모 구성(양친유무)	
		부모의 교육수준 5점 척도(1: 중졸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대학원졸)	
또래환경	또래애착	의사소통(3문항)	.82
		신뢰(3문항)	.79
		소외(3문항)	.77
	비행또래	지위비행 친구, 중비행 친구	
	피해경험	폭력피해경험유무	
학교환경	교사, 학생 관계	교사와의 관계 (5문항)	.84
		급우와의 관계 (4문항)	.70
비행		지위비행 횟수, 중비행 회수, 사이버비행 회수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빔, 사소한 일로 싸움, 화가 남, 이유 없는 울음으로 구성되었다. 신체화 증상은 수면 장애, 두통, 복통, 식욕 부진, 피곤, 호흡 곤란, 발열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위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함, 부끄러움을 탐, 의견표출 힘들, 수줍어함, 나서기 싫어함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울은 기운 없음, 불행하다고 생각, 걱정 많음, 죽고 싶은 생각, 빈번한 우울, 외로움, 자기비하, 절망, 일에 대한 힘듦의 10개의 문항이다. 성적 관련 변수는 과목별 성적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에 청소년이 느끼는 4점 척도로 된 전체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정서 문제를 나타내는 변수(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

축, 우울)들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0.81에서 0.91로 상당히 양호하였다(표 1 참고).

#### 가정환경 변인

가정환경 변인으로 가정의 연평균 소득, 부모의 학력과 양육태도(감독, 애정, 학대, 방임), 가족의 구조(구성 정보)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설문지는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도 그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제1차년도 자료에서 감독과 애정 문항 내용을 사용하였고, 제3차년도 자료에서 방임과 학대 문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감독 문항은 부모님이 내가 있는 장

소 인지, 나의 시간 보내는 방법 인지, 외출 시 귀가 시간 인지의 3개로 구성되었다. 애정 문항은 부모님의 애정 표현, 힘들 때 용기 주심, 칭찬의 3개이다. 방입 문항은 나의 생활에 대한 관심, 의복 등 위생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관심의 3개이다. 학대 문항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림,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때림, 심한욕설 사용의 3개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학대, 방임)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0.76에서 0.86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 또래환경 변인

또래환경 변인으로는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지위비행 친구 유무, 폭력 비행 친구 유무, 폭력 피해 경험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은 세 종류로 ① 의사소통은 친구들 이내 의견존중, 귀를 기울임, 고민상담의 3개 문항으로, ② 신뢰는 이해, 속 이야기 공유, 믿음의 3개 문항으로 ③ 소외는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음,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 친구들이 나의 근황을 모르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래애착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0.77에서 0.82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 학교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우 관계를 나타내는 5개 문항(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함,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줌,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함,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 이내 말을 잘 따라 줌)으로 구성 되었으나, 4번째 문항(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함)을 함께 사용할 경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낮아져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5개(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함,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함,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움,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함,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음)로 구성되었다. 학교에서의 교사 및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각각 0.70, 0.84로 양호하였다.

#### 비행 변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비행 관련 자료는 제2차와 제3차년도만 수집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제3차년도(중3)의 비행 자료를 사용하였고, 비행을 지위비행, 중비행, 그리고 사이버비행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위비행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해를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다. 지위비행은 패널 자료의 ① 담배 피우기, ② 술 마시기, ③ 무단결석, ④ 무단가출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중비행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로 폭력 비행(폭행, 집단패싸움, 친구따돌림 등), 성비행, 재산비행(절도)을 포함한 비행이다. 중비행은 지위비행보다 심각한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①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②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③ 패싸움, ④ 심하게 때리기, ⑤ 다른 사람 헐박하기, ⑥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뺨뺏기), ⑦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⑧ 성관계, ⑨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9개 문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이버비행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행으로 ① 채팅/게시판 등에 거짓정보 올리기,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③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④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⑤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⑥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의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료 코딩

모든 문항의 선택지는 ①은 '매우 그렇다'이며 ④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어서 역코딩을 하였고 높은 점수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로 해석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은 1로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가정의 평균소득은 정규분포가 아니어서 square root 변형을 하였고, 이후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내용이 유사한 양육태도, 또래애착, 정서/성격특징을 나타내는 두 개 이상의 문항이 특정 구인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해당 문항들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고,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문항의 평균을 관측변수로서 사용하였다. 각 비행 관련 하위 문항에 나타난 비행 횟수의 합을 사용하였다. 특히 지위비행 및 중비행의 경우, 80% 이상이 0으로 나타나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poisson분포의 가정이 적합하지 않아서 zero-inflated poisson 분포로 볼 수 있었다. 통계분석은 Mplus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교사와의 관계) 특성이 세 유형의 비행(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에 바탕을 둔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hybri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세 유형의 비행을 일반비행의 하위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모형1), 아니면 각기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가(모형2)를 확인하고자 모형1과 모형2의 두 개의 모형을 구축하였다(그림 1 참고). 즉 개인, 가정, 또래, 학교환경 특성이 각각 비행 빈도를 예측하며, 각 비행은 전체 모형의 하위요인으로 본 모형1과 개인, 가정, 학교, 또래 특성이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을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모형2를 구축하여 어느 모형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였다. 보다 나은 모형의 선택 기준은 BIC, AIC 값이 작은 경우(Schwartz, 1978)와 잠재계층(0,1) 분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기에 entropy가 큰 값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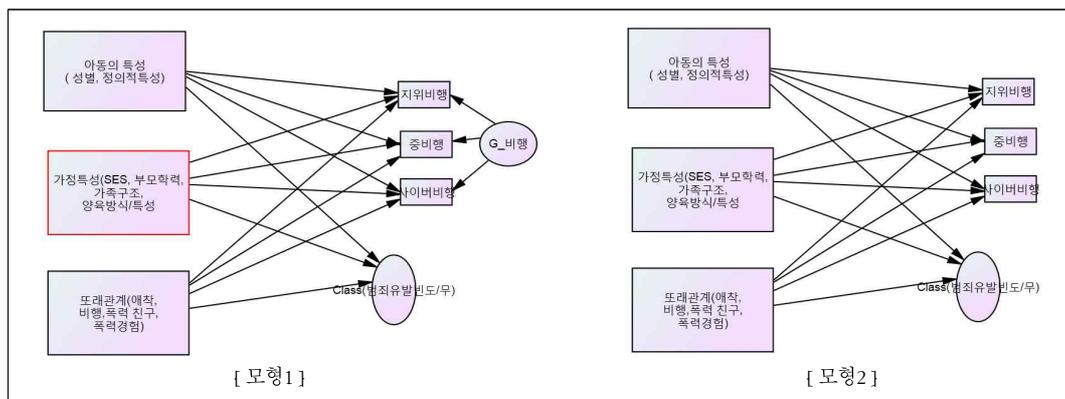


그림 1. 모형1: 세 가지 비행을 일반 비행의 하위개념으로 봄. 21개 독립변인이 각각의 측정변인인 개별 비행을 예측함. c(class) 비행/범죄 유발빈도가 없는 경우와 비행/범죄가 있는 경우를 나타냄. 즉, class가 구조적으로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하고, 21개 변수를 예측변수로 사용하였다. class에서 21개의 변수가 각각의 비행으로 가는 경로(본 도식에서는 점선으로 나타내지 않음), 이것은 파다 0(zero inflated)의 효과를 제거한 후의 효과이다. Mplus는 두 결과를 보여주며, 전자는 로짓모형(class가 0, 1에 속할 가능성), 후자(zero inflated 효과를 제거한 경우)는 빈도를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2: 21개의 측정변인이 각각의 비행을 예측하는 모형임.

(Hix-Small, Duncan, Duncan, & Okut, 2004). 내재된 모형이나 표본크기가 크므로 카이검증 결과에는 의존하지 않았다.

### 연구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행 경험 유무에 따른 빈도수는 지위비행의 경험자는 250명(11.5%), 중비행 경험자는 168명(7.1%), 사이버비행의 경우에는 798명(33.9%)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이버비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표 2 및 표 3 참고).

지위비행과 중비행을 중복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이 61명, 지위비행과 사이버비행을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가 131명, 중비행과 사이버비행을 경험한 경우가 120명, 그리고 세 유형의 비행을 모두 경험한 경우는 39명이었다(표 4 참고). 지위비행과 중비행의 상관관계는 0.272이고, 지위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상관은 0.167, 그리고 중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상관은 0.221이었다(표 5 참고).

각 개별 유형의 비행횟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포를 살펴보았으나, 정규성 가

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분포의 정규성 가정에서 자유로운 비행의 유무 정보만을 사용한 이항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할 경우에도 0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Zero-inflated Poisson 분포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및 그림 1, 그림 2 참고). 표 6은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Zero-inflated Poisson 모형에서는 각 모형마다 두 가지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로짓모형으로 비행 유무를 예측하는 변수의 효과를 보여주고, 둘째는 과도한 0(zero inflated)의 효과를 제거한 비행 횟수(count)를 예측하는 변수의 효과를 보여주는 poisson 모형이다. 로짓모형에서 ‘(categorical latent variable)’는 이항잠재 인플레이션 변수이며 두 개의 그룹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0이상의 값을 취할 수 있는 그룹(위험집단)과 0만을 취할 수 있는 그룹(비위험집단)을 나타낸다. 이런 접근은 각 그룹의 확률 뿐 아니라 각 개인이 각 그룹에 속할 확률도 나타낸다. 두 번째로, 다른 출력물은 비행 횟수를 나타내며 poisson 회귀결과를 보여준다. 즉 첫 번째 출력물인 class 1은 0만을 취하고, class 2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poisson 분포를 나타낸다(Muthen & Muthen, 2010, p. 184).

표 2.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 기술통계

지위비행	빈도	퍼센트	중비행	빈도	퍼센트	사이버비행	빈도	퍼센트
0	1,980	84.2	0	2,132	90.7	0.00	1,324	56.3
1	158	6.7	1	101	4.3	1.00	461	19.6
2	74	3.1	2	11	.5	2.00	209	8.9
3	20	.9	3	3	.1	3.00	77	3.3
4	18	.8	4	4	.2	4.00	33	1.4
			5	3	.1	5.00	15	.6
			7	1	.0	6.00	3	.1
합계	2,250	95.7	합계	2,255	95.9	합계	2,122	90.3
결측	101	4.3	결측	96	4.1	결측	229	9.7
	2,351	100.0		2,351	100.0		2,351	100.0

표 3. 비행문항 및 빈도

비행종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위비행	비행: 연간 행동경험 유무- 담배 피우기	147	6.3	6.5
	비행: 연간 행동경험 유무- 술 마시기	160	6.8	7.1
	비행: 연간 행동경험 유무- 무단결석	80	3.4	3.6
	비행: 연간 행동경험 유무- 가출	55	2.3	2.4
중비행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89	3.8	3.9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15	.6	.7
	패싸움	9	.4	.4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4	.6	.6
	다른 사람 헐박하기	8	.3	.4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뺨뜯기)	15	.6	.7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1	.5	.5
	성관계	5	.2	.2
	성폭행이나 성희롱	4	.2	.2
	사이버비행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59	2.5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535	22.8	25.2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116	4.9	5.5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209	8.9	9.8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31	1.3	1.5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385	16.4	18.1
합계	2,351	100.0		

\*결측치를 전체응답에 포함한 경우

표 4. 비행별 중복 빈도

지위비행&중비행	빈도	비율(%)	중비행&사이버	빈도	비율(%)
여	13	21.3	여	19	15.8
유효 남	48	78.7	유효 남	101	84.2
합계	61	100.0	합계	120	100.0
지위비행&사이버비행	빈도	비율(%)	지위&중&사이버	빈도	비율(%)
여	28	21.4	여	7	17.9
유효 남	103	78.6	유효 남	32	82.1
합계	131	100.0	합계	39	100.0



표 6. 개인특성, 가정환경, 또래환경 변인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별	2,351	0	1	0.5	0.5	-0.001	-2.002
감독	2,350	1	4	3.16	0.65	-0.61	0.144
애정	2,350	1	4	3.05	0.66	-0.59	0.245
방임	2,259	1	4	3.16	0.56	-0.27	0.392
학대	2,259	1	4	1.84	0.717	0.958	0.504
공격성	2,259	1	5.5	2.21	0.61	0.13	0.386
우울	2,259	1	4	1.98	0.63	0.22	-0.34
신체화	2,259	1	4.3	2.08	0.68	0.114	-0.46
사회적위축	2,259	1	7.6	2.27	0.75	0.124	0.498
의사소통	2,259	1	4	3.06	0.53	-0.12	0.965
신뢰	2,259	1	4	3.16	0.56	-0.43	0.876
소외	2,257	1	4	2.09	0.74	0.51	0.116
교사	2,259	1	4	2.88	0.63	-0.13	0.057
교우관계	2,259	1.4	4	3.07	0.39	-0.03	0.508
성적만족도	2,258	1	4	2.24	0.8	0.056	-0.62
연평균가구소득	2,180	0	200	65.87	18.58	0.514	2.41
부모학력	2,194	1	5	2.848	0.96	0.221	-1.21
부모구성	2,225	0	1	0.863	0.346	-2.11	2.462
지비친구	2,259	0	1	0.277	0.45	0.999	-1
폭비친구	2,259	0	1	0.131	0.33	2.183	2.766
폭력피해경험	2,248	0	1	0.081	0.27	3.074	7.459
지위비행수	2,250	0	4	0.190	0.61	3.798	15.9
중비행수	2,255	0	7	0.080	0.392	8.554	99.31
사이버	2,122	0	6	0.629	1.009	1.945	4.109

주) 성별은 남자 1로 여자는 0으로 코딩을 하였고, 평균은 남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 결 과

비행을 예측하는 개인 특성, 가정환경 특성, 학교환경 특성, 또래환경 특성 변수를 사용한 모형 1과 2를 비교한 결과이다. 첫 번째 모형의 자유도(df=93)는 두 번째 모형의 자유도(df=88)

보다 컸다. 단순한 모형이 복잡한 모형에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차이 검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chi^2 = 24$ ). 본 연구에서 보다 나은 모형 선정의 기준으로 AIC, BIC, SSAB 값이 작은 것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의 AIC, BIC, SSAB 값이 각각 6,670, 7,276, 7,001이었고,

모형2는 6,822, 7,320, 7,040 이었다. 두 모형에서 수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1 그룹으로 분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entropy 지 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는 세

표 7. 모형 적합도 비교

Model	AIC	BIC	SSAB	entropy	df	loglikelihood
모형1	6670.66	7296.79	7001.32	0.505	93	-3292.33
모형2	6822.57	7320.41	7040.83	0.505	88	-3323.82

표 8. 비행에 미치는 아동, 가정, 또래 특성의 효과: 모형1

변수명	지위 비행			중비행			사이버 비행			로깅 모형			odd-ratio
	b	se	p	b	se	p	b	se	p	b	se	p	
성별	0.35	0.17	**	0.89	0.26	**	0.50	0.10	**	-0.43	0.30		0.65
감독y1	-0.19	0.10	**	-0.28	0.15		-0.08	0.07		-0.10	0.19		0.90
애정y1	-0.08	0.11		-0.56	0.15	***	-0.07	0.08		0.11	0.23		1.11
방임	0.14	0.13		0.27	0.21		0.04	0.10		0.17	0.36		1.18
학대	0.14	0.10		-0.06	0.12		0.11	0.05	*	0.34	0.17	**	1.41
공격성	0.23	0.14		0.17	0.19		0.03	0.08		-0.74	0.37	**	0.48
신체화	0.40	0.16	**	-0.36	0.24		0.12	0.10		-0.19	0.32		0.82
사회적위축	0.35	0.15	**	0.34	0.22		-0.07	0.09		0.00	0.31		1.00
우울	-0.63	0.12	***	0.02	0.14		-0.03	0.07		-0.12	0.21		0.89
의사소통	-0.09	0.20		0.29	0.23		0.03	0.13		-0.18	0.49		0.84
신뢰	0.22	0.17		-0.20	0.19		-0.03	0.11		-0.18	0.34		0.84
소외	-0.37	0.11	***	-0.15	0.14		-0.09	0.08		-0.16	0.35		0.85
교사	-0.27	0.11	**	-0.15	0.18		-0.13	0.07		0.39	0.23		1.48
교우관계	-0.40	0.20	**	-0.41	0.34		-0.03	0.14		-0.03	0.44		0.97
성적만족도	-0.20	0.09	**	-0.15	0.12		-0.10	0.06		-0.26	0.25		0.77
연소득	-0.02	0.01	***	0.00	0.01		-0.01	0.00	**	-0.03	0.01	**	0.97
부모학력	-0.16	0.08	**	-0.03	0.12		0.08	0.05		0.14	0.17		1.14
부모구성	-0.28	0.21		0.20	0.31		0.26	0.14		1.99	1.32		7.28
지비친구	1.83	0.18	***	0.48	0.26		-0.04	0.12		-1.41	0.44	***	0.24
폭비친구	-0.02	0.17		1.55	0.26	***	0.26	0.12	*	-0.41	0.89		0.67
폭력피해경험	0.58	0.17	***	1.45	0.22	***	0.34	0.10	**	-0.74	0.50		0.48

주) 성별, 감독, 및 애정변인은 1차년도(1학년)의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함. 그 외는 3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함

가지 유형의 비행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각각을 일반비행(G-delinquency)의 하위요인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해당변인들이 세 유형의 비행을 예측하는 결과 분석은 모형1의 결과를 기준으로 기술한다(표 8 참고). 먼저 과다한 0(zero inflated) 그룹에 관한 로짓모형의 결과를 보고한 후, 구조적으로 0인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빈도(무선적으로 발생하는 0은 포함)를 예측하는 결과(Acock, 2009) 즉 비행빈도를 예측하는 모형은 이후에 보고한다. 각 변인의 효과는  $100*[e(b)-1]$ 로 비행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해석한다(Acock, 2006; Atkins & Gallop, 2007).

세 유형의 비행에 미치는 청소년의 정서특성(공격성, 우울증), 가정환경특성, 또래환경특성, 교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이 세 유형의 비행유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잠재변수와의 관계의 크기는 지위비행을 1(100%)로 볼 경우, 중비행은 1.115(205%), 그리고 사이버비행은 0.348(41.6%)로 나타났다. 즉 중비행의 영향력이 세 가지 비행 중 가장 컸다.

#### 비행을 하지 않을 그룹에 속할 가능성

그림 1에서  $\alpha$ (카테고리, zero-inflated 부분)는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온전히 0인 경우를 예측하는 각 개별 변인의 관계를 나타낸다. 보통의 로짓모형 해석과는 달리, 여기서는 비행을 전혀 구조적으로 하지 않을 그룹(=0)에 속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비행 유무 그룹과 관련하여 비행의 부재를 예측하는 변수로 부모의 학대 경험( $b=0.343$ ;  $odds\ ratio=1.401$ )이 1점 증가함에 따라 비행에 연루되지 않을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1.401배(약 40%가 더 높음)이었다.

그러나 공격성( $b=-0.735$ ;  $odds\ ratio=0.48$ ), 가정의 소득( $b=-0.030$ ;  $odds\ ratio=0.97$ ), 그리고 지위비행 친구( $b=-1.414$ ;  $odds\ ratio=0.24$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1점 증가에 따라 비행하지 않을 그룹(비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0.480

으로 52% 줄어들었고, 가정의 소득이 1점 증가함에 따라 1: 0.970로 비행하지 않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약간 낮아졌으며(3%), 지위 비행 친구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1:0.243으로 비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 76% 낮았다.

#### 지위비행 빈도를 예측하는 변수들

지위비행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 지위비행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로는 성별이 남학생인 경우, 정서문제에서 신체화,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정도, 지위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b=0.350$ ;  $odds\ ratio=1.42$ )이 여학생보다 지위비행을 1.42배로 약 42%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서적 특성으로 신체화( $b=.401$ ;  $odds\ ratio=1.49$ )가 1점 높은 경우, 1.49배 더 지위비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위축( $b=0.350$ ;  $odds\ ratio=1.42$ ) 변수가 1점 높아감에 따라 1.42배 지위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위 비행 친구( $b=1.83$ ;  $odds\ ratio=1:6.22$ )가 있는 경우와 폭력 피해 경험( $b=0.58$ ;  $odds\ ratio=1.79$ )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6.2배, 1.79배 지위비행을 더 자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감독( $b=-0.193$ ;  $odds\ ratio=0.92$ ), 우울( $b=-0.63$ ;  $odds\ ratio=0.53$ ), 소외감( $b=-0.367$ ,  $odds\ ratio=0.69$ ), 학교에서의 교사와의(긍정적인) 관계( $b=-0.268$ ;  $odds\ ratio=0.76$ ),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 $b=-0.404$ ;  $odds\ ratio=0.67$ ),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 $b=-0.197$ ;  $odds\ ratio=0.82$ ), 가정의 소득 수준( $b=-0.015$ ;  $odds\ ratio=0.99$ ), 부모의 교육수준( $b=-0.155$ ;  $odds\ ratio=0.86$ )은 지위비행 빈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여 이들 변수들은 지위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비행 빈도를 예측하는 변수들

성별, 폭력 비행 친구, 폭력 피해 경험 여부가

중비행 빈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모형에 들어간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학생( $b=0.889$ ;  $odds\ ratio=2.46$ )인 경우가 여학생에 비하여 2.46:1로 중비행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서는 중비행의 경험이 있는 또래가 있는 경우( $b=1.550$ ;  $odds\ ratio=4.71$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7배 중비행 발생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b=1.452$ ;  $odds\ ratio=4.27$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27배 더 중비행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수로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 때 보고한 부모의 애정( $b=-0.278$ ;  $odds\ ratio=0.57$ )이 높다고 보고한 경우에 중학교 3년 때의 중비행의 발생 빈도를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정이 1점 높은 경우, 중비행의 발생 가능성은 1:0.57(4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비행 빈도를 예측하는 변수들

사이버비행의 발생 빈도에 정적인 관계가 요인으로는 성별(남학생), 학대경험, 중비행 친구, 그리고 폭력 피해 경험 변수로 나타났다. 즉, 모형에 들어간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 경우( $b=0.495$ ;  $odds\ ratio=1.64$ )가 1.64배 사이버비행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 $b=0.106$ ;  $odds\ ratio=1.11$ )를 경험한 경우가 1점 높아질 경우에는 1.1배 사이버비행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폭력 비행 친구( $b=0.261$ ;  $odds\ ratio=1.29$ )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9배 사이버 비행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경험( $b=0.343$ ;  $odds\ ratio=1.41$ )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41배 사이버비행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특성인 부모의 소득수준은( $b=-0.009$ ;  $odds\ ratio=0.99$ )은 사이버비행의 발생 빈도와 매우 약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표 8 참고).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의 유발요인이 각각의 개별 비행에 따라 비행 유발 요인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적인 모형으로 비행유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청소년 비행이론에서 많이 언급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을 '일반비행'이라는 잠재구인의 하위요인으로 한 모형(모형1)과 세 유형의 비행을 별개로 보는 모형(모형2)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세 개 유형의 비행이 각각 유형별로 독립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형보다는 세 유형의 비행이 일반비행(General Delinquency)의 하위요인으로 보는 모형이 적합도 측면에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이 타당 할 수 있다는 남재봉(201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이 일반 비행이라는 잠재구인의 하위요인이며, 비행 유형 중 중비행이 해당 잠재구인과의 관계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지위비행으로 나타났다. Zero-inflated poisson 모형을 사용하였다. Mplus에서는 두 가지 모형에 관한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전혀 비행에 속하지 않을 그룹을 예측하는 로짓모형 결과가 나오며, 다른 모형은 구조적으로 0이 아닌 경우(위험집단)의 비행빈도를 예측하는 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poisson모형이 보여준다. 그러나 두 경우에서 각 변수가 항상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계수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대경험으로, 비행을 전혀하지 않을 그룹에 속할 가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사이버비행 발생 횟수와도 정적이 관계가 있었다. 아마도 비행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룹(비위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그룹(위험집단)으로 나누는 분류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에 기인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 중 우울이 비행을

예측하는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모형은 구축하지 않았기에 이 둘 간의 관계를 충분히 살펴보는 못하였다.

비행의 특성에 따라 성별, 정서/성격, 가정환경, 또래환경이 각 비행유형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비행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비위험집단)과 관련하여 공격성이 높은 경우, 지위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효과는 작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비행을 전혀 하지 않을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비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높았으나, 비위험집단과 위험집단을 분류하는 정확도가 높지 않기에 이에 대한 결과해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 유형의 비행 발생 가능성(빈도)에 있어서 공통점으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학생인 경우와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비행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차이점으로는 지위비행 빈도에 있어서 교사 및 교우관계, 소외감, 성적에 대한 만족감은 지위비행의 발생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우울, 신체화, 사회적 위축 및 부모감독은 지위비행의 유발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중비행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느끼는 부모의 애정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중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에 비해 부모의 애정이 중비행과 사이버비행의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부모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부모와의 유대가 낮을 경우에는 청소년은 비행또래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비행예방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적절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Hirschi, 1969, 이주리, 2008, 2011).

사이버비행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와 중비행 친

구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비행의 발생 빈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지위비행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가 바람직한 경우와 바람직한 교우관계는 비행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세 유형의 비행에 모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교사-학생간의 관계 및 학생-학생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적 관계는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소외 의식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Dwyer, Osher, & Hoffman, 2000). 즉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지위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 풍토 고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의 비행 예방에는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긴장이론에서 주로 보는 가구 평균 소득수준은 사이버비행 발생 빈도에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변수 단위 당 효과 크기가 큰 변수로서 볼 수 있는 비행 친구의 존재는 차별교제이론에서 사용된 변수의 설명력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준다. 인습적인 급우관계는 지위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었으나 중비행과 사이버비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다른 변수들에 비해 부모의 애정 변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얻어진 정보이나, 그 효과는 중학교 3학년 때의 비행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공격성도 효과 크기가 다소 다르나, 세 유형의 비행 발생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격성은 중비행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비행일반이론의 사용 가능성을 하나의 모형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지위비행, 중비행, 사이버비행은 각각 다른 형태로 표출되나, 이들 비행은 전체적인 일반비행의 하위변수로 간주할 수 있기에 아직 별도의 비행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또한 각 비행에 미치는 여러 심리적인 변수보다는 실제 해당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나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세 유형의 비행을 더 잘 예측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과 개별 유형의 비행 발생의 예방에 관하여 남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폭력피해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박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3).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 기광도 (2012).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2), 61-86.
- 김소정 (2010). 인터넷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57-79.
- 김용석, 박명숙 (2000). 청소년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용수, 김성진 (2010). 소년보호과정 청소년의 비행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2), 1-22.
- 김윤정 (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원, 오경자 (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2(2), 126-141.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 (2013).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31-59.
- 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현수, 김현실 (2004). 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변인 및 표출 경로. 신경정신의학회, 43(1), 75-84.
- 김효선, 이동귀, 배병훈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에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6), 2641-2656.
- 남재봉 (2010). 학교 유형과 청소년 비행. 사회학연구, 27(2), 59-90.
- 남재봉 (2011).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관련요인. 사회과학연구, 28(2), 1-23.
- 박종효, 박효정, 정미경 (2007).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연구. -발생건수, 심각성 지각과 대처 효능감의 관련성-. 한국교육, 34(2). 한국교육개발원.
- 박현정 (2001).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방어기제 특성.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2(4), 37-56.
-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7(2), 63-88.
-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
- 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애착유형과 지각

- 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 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유안진,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이득연, 박자양, 이동훈 (2006). 청소년의 역기능적 심리특성과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모형 검증-인터넷 중독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7(1), 103-115.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이주리 (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563-574.
- 이주리 (2011). 부모 및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 종단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21-30.
- 이희정, 박혜숙, 전명남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징계경험과 지위비행 및 관련변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종단적 추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81-96.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2SLS를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박연정 (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15(4), 67-91.
- 정익중, 이은주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정아 (2010).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과 우울의 상호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1(4), 143-169.
-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 Acock, A. C. (2009). *Categorical and Zero Inflated Growth Models*. <http://oregonstate.edu/~acock/growth> (retrieved 2014. 1. 10).
- Atkins, D. C., & Gallop, R. J. (2007). Re-thinking how family researchers model infrequent outcomes: A tutorial on count regression and zero-inflated mode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 726-735.
- Berndt, T. J. (1992). Friendship and friends' influence in adolesc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56-159.
- Bowlby, J. (200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U.S.A: Basic Books.
- Brendgen, M., Vitaro, F., & Bukowski, W. M. (2000). Stability and variability of adolescents' affiliation with delinquent friend: Predictor and consequences. *Social Development*, 9, 205-225.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onger, R.D., Patterson, G.R., & Ge, X. (1995). It takes two to replicate: A mediational model for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scen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80-97.
- Dwyer, K. P., Osher, D., & Hoffinan, C. C. (2000). Creating responsive schools: Constextualizing early warning, timely response. *Exceptional Children*,

- 66, 347-365.
- Ennett, T., Foshee, A., Bauman, E., Hussong, A., Cai, L., Reyes, M., Faris, R., & Hipp, J., & Durant, R. (2008). The social ecology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Child Development*, 79(6), 1777-1791.
- Fergusson, D. M., & Horwood, L. J. (1998).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and Neglect*, 22(5), 339-357.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x-Small, H, Duncan, T.E, Duncan, S.C., & Okut, H. A. (2004). A multivariate associative finite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examining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 255-270. Retrieved from <http://www.springer.com/psychology/journal/10862>.
- Institute for digital research and education (<http://www.ats.ucla.edu/stat/> retrieved Feb 5th, 2014).
- Kazdin, A., Bass, D., Sigel, T., & Thomas, C. (1989).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referred for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4), 522-35.
- Kovacs, M, Gatsonis, C., Paulauskas, S. L,& Richards, C. (1989).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V.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Arch Gen Psychiatry*. 46(9), 776-82.
- Ma, C. Q., & Hu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 45(2), 177-190.
- Malaspina, D., & Rimm-Kaufman, S. (2008). Early predictors of school performance declines at school transition points. *Research in Middle Level Education*, 31(9), 1-16.
- Milton, B. S., Dugdill, L., Porcellato, L. A., & Springett, R. J. (2008). Kids who smoke think that they can be adults as well: Children's smoking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ren & Society*, 22(4), 291-302.
- Muthen, L. K., & Muthen, B. O. (2010). *Mplus,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Users' Guide*. LA, CA: Muthen & Muthen.
-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Sanders, W. B. (1981). *Juvenile Delinquency: Causes, patterns, and reac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chwart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Chicago: Lippincott, J. B. company.
- Tittle, C., & Villemez, W. (1977).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Social Forces*, 56, 474-502.
- Wiesner, M., Silbereisen, K., & Weichold, K. (2008). Effects of deviant peer association on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A growth mixture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5), 537-551.
- Young, K. S., & Rod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
- 1 차원교접수 : 2013. 12. 24.  
수정원교접수 : 2014. 04. 29.  
최종게재결정 : 2014. 05. 08.

## Effects of Korean Adolescents' Emotion (Affect), Family, Peer, and School Environment on Juvenile Delinquency.

**Park, Hye-Sook**

Honam University

**Kim, Yang-Kon**

Daegu Probation Office

With regard to investigating the cause of deviant/delinquent behaviors, this study tested the two models: 1) three types of deviant behaviors, such as status, severe, and cyber delinquency as the constituents of general deviance and 2) the three delinquencies are independent from one another using hybri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data used are from the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of Korean Children-Youth Panel Survey(KCYPS) and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Mplus (V.6.12). Since the three delinquencies with many zeroes were predicted by 21 independent variables, zero-inflated poisson models were construct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del with the three delinquencies as constituents of general deviances fit better. The poisson model shows two outputs: First, the logit model outcome shows that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structurally zero group (non risk group)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ggression, having friends with status deviances, and high family income, but associated positively with parental abuse. Second, with the poisson model,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predicting the frequency of committing deviant behavior depends on types of deviances. The effects of emotion/affect, personality, family/parenting styles, school environment (teacher, peer relations) varied. However, male students and those who were recipient of violence were associated positively with the probability of committing the three types of delinquencies. However, caution is needed interpreting the log-odds of belong to a non-risk group since the correct classification rate is not so high. Suggestions were made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ies.

*Key words* : status delinquency, sever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parenting, peer attachment, depression, aggression